

## 국민체육시설이 꼭 골프장이어야만 하는가

—골프장의 환경오염 실태—

정 홍 식

“80만평의 수려한 대자연 속에 펼쳐진 환상의 26홀이 감동의 드라마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회금액 4천2백만원-1인” 이상은 골프장 선전문구의 일부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선전의 이면에는 골프장이 자연 및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다.

골프장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주민 생활의 피해를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산림벌채, 자연훼손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건설공사중의 발파음으로 인한 소음, 진동, 농업용수와 식수고갈 및 지역공동체 파괴, 자녀교육상 문제, 주민간 위화감 증대, 농지 잠식으로 인한 탈농현상 가중 등 지역생활 터전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 여기서는 주로 환경오염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 서술해 본다.

골프장은 대규모의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다.

'91년 7월말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운영중인 골프장이 59개이고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116개를 합쳐 총 175개에 달한다. 그 전체 면적은 6천4백여만평으로 전국 택지 면적의 11%에 해당하고, 1천만 근로자가 일하고 먹고 사는 공장 면적 5천7백여만평을 훨씬 넘어선 규모이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필연적으로 산림이 파괴된다. 울창한 수풀이 배어짐에 따라 각종 동식물들이 사라짐은 물론 자연의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감소하고 보수력(물을 머금은 능력)도 원래 보다 크게 줄어든다. 왜냐하면 잔디의 보수력이 잡목이나 수풀에 비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골프장의 제1조건이 배수성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바로 잔디밑 배수관을 통해 조정지로 빼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상류의 보수력 저하로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와 홍수가 나고, 반대로 가물면 땅이 곧바로 타들어가게 된다.

게다가 골프장이 정상운영되면 주민들은 전에 없는 극심한 식수난, 농업용수 고갈에 시달린다. 왜냐하면 골프장 잔디는 이들에 한번씩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 그 양이 하루에 600~800톤(19홀 규모 골프장)에 달하고, 한발이 심할 경우 1,500톤에 달해 골프장 주변의 물을 몽땅 다 끌어다 쓰기 때문이다. 골프장 건설이 대개 저수지를 끼고 건설되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한편 골프장 업주측에서는 국도의 효율적 이용을 내세우며 골프장 건설을 합리화한다. 즉 척박하고 매마른 쓸모 없는 땅을 가꾸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아주 유익한 사업이 바로 골프장건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이거나 계획중인

대다수의 골프장은 주변 경관이 좋고 산림이 울창한 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농지,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지역까지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어 국도의 효율적 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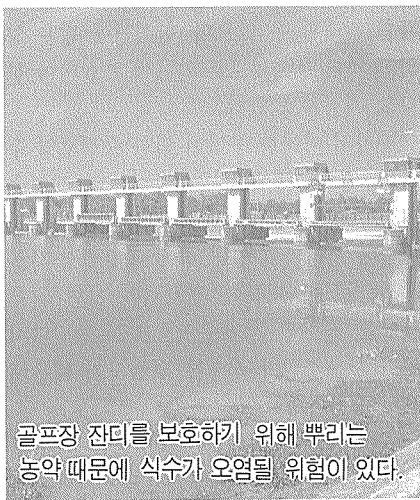
더군다나 아무리 쓸모 없어 보이는 산일지라도 사실은 국도의 치산치수라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수해와 가뭄을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다.

건설중인 골프장은 발파음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공해를 유발한다.

운영중인 골프장의 경우 그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에 비해-토양오염, 식수 및 수질오염, 각종 폐기물의 발생 등-공사중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흙탕물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라 암반을 폭파시키기 위한 발파작업으로 가축이 사산하고, 집에 금이 가는가 하면 축사가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골프장 시공업체에서 쓰고 있는 폭약은 30여m 높이의 바위덩이를 한번에 부술 수 있을 정도의 진동폭약이어서 발파시 돌을 날려 보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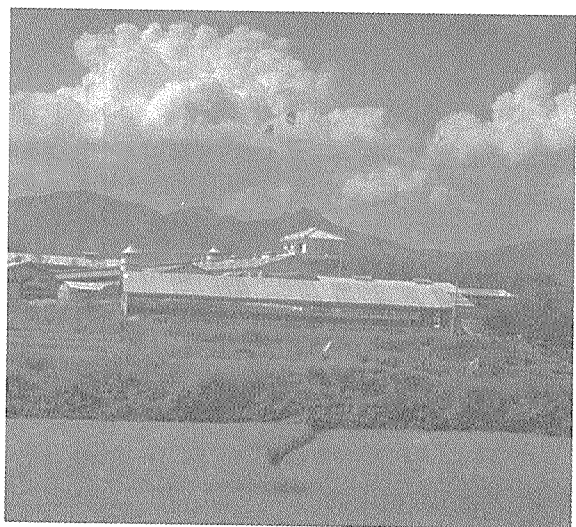
발파음의 피해는 육우·돼지가 살이 오르지 않고, 젖소의 젖이 마르는 등 주민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골프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뿌리는 농약 때문에 식수가 오염될 위험이 있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 수는  
175개 정도 되며,  
그 전체 면적은  
6천 4백여만평으로  
전국 택지면적의  
11%에 해당한다.



다량의 맹·고 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양 및 수질이 오염된다.

골프장에서 농약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골프장 잔디는 대부분 수입한 잔디를 심고 있기 때문에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려면 막대한 양의 농약과 비용을 뿌리지 않으면 각종 병충해에 큰 피해를 입는다.

또한 잔디밭은 원래 지렁이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렁이를 먹이로 하는 두더지가 잔디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게 되므로 결국 잔디보호를 위해 두더지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더지의 식량인 지렁이를 없애는 것은 물론 그 먹이인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땅속 50cm 이내에는 아예 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맹독성 농약을 마구 뿌리며 특히 비가 그친 뒤에는 농약의 독성을 2배 이상 강하게 하여 뿌려야 한다.

골프장 업주측은 '골프장 농약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한국잔디연구소」(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에서 골프장 관리지침으로 배포한 보고서에 의하면 '훼어리링'이라는 병원균은 토양중 10~20cm 깊이에서 기생하기 때문에 이 병원균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1평방미터당 10~20ℓ의 농약을 뿌려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농약이 투여되므로 약해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는, 경기도내에서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89개가 대부분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에 자리잡고 있어 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바로 팔당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를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업주측은 '농약에 오염된 물은 연못에 14일간 저장했다가 방류하므로 아무런 문

제가 없다”고 하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집수탱크 용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약에 오염된 물이 그대로 흘러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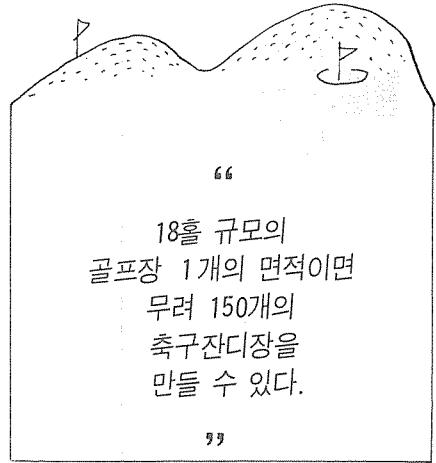
골프장은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장한다.

최근 전세값 1백만원을 올려줄 돈이 없어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마당에 웬만한 소규모 아파트 한채값을 넘어서는 골프회원권은 고사하고 '4~5시간에 10만원을 지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체 국민중 과연 몇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골프는 하루에 30만평의 넓은 초원을 겨우 150명만이 독점하는 토지 소모성 놀이이다. 한사람이 하루에 2천평 이상이나 소모하는 사치성 골프는 호당 3천평도 채 안되는 땅을 일구며 외국 농축산물 수입과 저농산물 가격으로 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볼 때는 놀이가 아니라 죄악이다.

또 사회체육의 활성화에도 골프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축구의 경우 아침마다 조기축구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대중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잔디연습구장 하나 없어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1개의 면적이면 무려 150개의 축구 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어 사회체육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 현재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골프장 116개를 건설하는데 드는 자금 규모면 120만 가구의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액수여서 현재와 같은 주택난을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골프장 건설은 재벌들의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골프장은 아무런 제약 없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기의 대상이다. 더구나 엄청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무용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서는 폐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태영골프장이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나온 내용을 인용하면 기업의 골프장 건설사업의 목적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골프장 건설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최대의 목적은 장기적 안목의 부동산 투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를 무이자의 자금으로 할 수 있다는데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지가의 상승으로 장래에 있어서 큰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즉, 골프클럽의 일괄매각은 가능하며 방대한 토지의 장기 보유 방법으로써의 장점이 최대의 목적이다.” [7]

〈필자=녹색의 전화 상담원〉